칼 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칭찬합니다! 서용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을

칭찬!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칭찬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이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인간관계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온화하게 해줌은 물론 그 넓이를 한없이 넓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다. 생각해 보라. 누구든지 칭찬을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가를.

칭찬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모으려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도 않는다. 즉,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광폭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칭찬은 그 효과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진은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칭찬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고 예찬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다.

상대방을 칭찬하면 자기 자신이 손해 보는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방과 겨루기보다는 사술을 써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승승게임보다는 자신만이 모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오히려 험담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 세상이지 않을까.

험담이 인간 세상의 독소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모로코 속담에도 험담은 최소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험담을 말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험담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험담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처럼 험담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험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는 곧 우리 주변을 청량감보다는 혼탁함이 감도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오물투성이 사회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모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칭찬을 생활화해야 하지 않을까? 음지에서 조용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현재 서용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이다.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1급 국가유공자다. 장애인, 영세민, 노인 등을 위한 진정한 친구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 개선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는 광주 장애인비엔날레 개최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도 개최했음은 물론이다.

가족 중심의 돌봄지원체계 강화와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손자녀돌봄 지원' 조항을 '손자녀 가족돌봄 지원'으로 변경하여 조부모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더 넓은 가족 중심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6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다.

돌봄 제공자 역시 조부모 외에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참으로 서용규 부의장의 공로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찾아가서 열렬한 동지로서 함께 걸음 하는 사람이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들을 훈훈하게 해준다. 그래서 거듭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집회 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경찰의 역할은 달라지고 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이자 시민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모이는 공간인 만큼 작은 변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사람으로서 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집회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다른 입장과 감정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음을 실감한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외침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불편일 수 있다. 그 사이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책임은 '질서'보다 '안전'이다. 모두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집회 대응의 출발점이자 지켜야 할 원칙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집회 대응은 사전적·예방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보충적으로 질서를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주최 측과 충분히 소통하며 이동 동선과 집결 장소를 점검하고, 인파 밀집 구간 관리와 긴급차량 통로 확보 등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안전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책임이 모일 때, 집회 현장은 갈등의 공간을 넘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드러나는 신뢰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소현 고흥경찰서 경비안보과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음력 1월 30일)

48년생 전전긍긍 고민 시원하게 풀려진다. 60년생 허기졌던 곳간 넉넉히 채워진다. 72년생 쉽다 하는 농담 뒷수습이 어렵다. 84년생 행운의 주인공 만세가 불려진다. 96년생 까다로운 조건 합격점을 넘어선다.

49년생 긍정인 대답 놀란 가슴 쓸어내자. 61년생 원망도 아쉬움도 바람에 실어내자. 73년생 지치고 힘든 상황 한 발 쉬어가자. 85년생 해내고 싶던 목표 눈으로 보여 진다. 97년생 같은 슬픔을 가진 친구를 찾아가자.

50년생 호언장담 결과 물음표가 그려진다. 62년생 안성맞춤 제안 동참을 서두르자. 74년생 욕심을 내려야 쉽고 편하게 간다. 86년생 청출어람 솜씨 초보티를 벗어내자. 98년생 늦어있는 공부 혼나면서 배워가자.

51년생 커다란 나무처럼 그늘을 남겨주자. 63년생 새로운 시도에 자신감을 더해보자. 75년생 없어도 있는 척 호기를 부려보자. 87년생 때맞춘 지원군이 급한 불을 꺼준다. 99년생 세모와 네모 사이 중간을 지켜내자.

52년생 긴 병에 효자 없다 방향 전환 해보자. 64년생 생각을 바꾸면 배가 산으로 간다. 76년생 따끔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내자. 88년생 뜨거운 박수에 보란 듯이 답해주자. 00년생 좋다 하는 고백 메아리가 되어 간다.

53년생 새로운 동반자와 꿈을 만들어가자. 65년생 지나친 관심 간섭으로 보여 진다. 77년생 초가삼간 살림 부자가 되어 간다. 89년생 방법을 알았으면 실천에 옮겨가자. 01년생 심부름을 해도 자존심을 걸어보자.

54년생 감사하다 인사 뿌듯함이 더해진다. 66년생 그럴 수 있다로 잘못을 감싸주자. 78년생 허술한 준비 아닌 들어 마땅하다. 90년생 하늘과 땅 차이 경쟁에서 이겨난다. 02년생 역경도 시련도 슬기롭게 맞서보자.

52년생 과거의 화려함을 되찾아 올 수 있다. 67년생 늦어있는 속도 빠름을 가져보자. 79년생 어르고 떼를 써야 허락을 받아낸다. 91년생 숨겨진 곳에서 보석을 찾아내자. 03년생 기특하다 칭찬 입이 귀에 걸려 진다.

56년생 분위기에 취하면 가난이 들어선다. 68년생 속삭이는 유혹 거짓임을 알아내자. 80년생 괜히 하는 수고 모양만 빠져 간다. 92년생 인연이 아니면 미련 남기지 마라. 04년생 얼마나 행복한지 잣대로 재어보자.

57년생 선물의 크기보다 정성이 우선이다. 69년생 길고 멀었던 부진에서 벗어난다. 81년생 낮은 자세 겸손 기초부터 다시 하자. 93년생 비싼 값을 치러야 진짜와 만나진다. 05년생 풀어져있는 긴장의 끈을 조여내자.

56년생의미 있는 축하 기슴으로 간직하자. 70년생 끌고 당기던 거래도 장이 찍혀진다. 82년생 잔뜩 했던 기대 숙제만 남겨진다. 94년생 으뜸 성적표로 콧대를 높여보자. 06년생 언제오나 애타던 만남을 가져보자.

59년생 수염이 석자라도 지적을 들어보자. 71년생 돌아보니 제자리 각오를 다시 하자. 83년생 화해는 빠르게 먼저 손을 잡아주자. 95년생 겉에 화려함 포장임을 알아내자. 07년생 멋있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기고

불씨는 잠깐, 피해는 평생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산과 들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등산과 농번기 준비 등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와 동시에 산불 위험 또한 가장 높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는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이 반복되고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줄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상시적 재난이 되었다.

산불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타는 사고가 아니다.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 생태계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역 공동체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우리 함평군 역시 2023년 4월, 신광·대동면 일원에서 군 역사상 가장 큰 대형 산불을 겪으며 641㏊가 넘는 소중한 산림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산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만, 다시 울창한 숲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불피해지 복구와 산림 회복을 위해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 사업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군민과 공직자, 산불진화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 결과, 지금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 없이 안정적인 산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반복 훈련 ▲산림 인접 지역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정책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산불 제로화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사항은 분명하다.

첫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논·밭두렁이나 주택 주변에서의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은 가장 빈번한 산불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봄철에는 마른 풀과 낙엽이 많아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원상복구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지속·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2026. 2. 1.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었다.

둘째,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는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라이터, 버너, 담배 등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에 오르기 전 소지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

현행 법령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이나 취사는 엄격히 금지돼 있고 인화물질 소지 자체도 제한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과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산불 없는 안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불조심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의 숲을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함평군 부군수 강하춘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